

민천홍보

제2907호 | 2025년 11월 23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소리주보 QR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일상 안의 성체조배」 화수동 성당

교구 가톨릭사진가회 지도 신부 김원영 프란치스코

입당송 |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 2사무 5,1-3

화답송 | 시편 122(121),1-2.4-5(◎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2독서 | 콜로 1,12-20

복음 환호송 |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 루카 23,35L-43

영성체송 |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섬김으로 드러난 임금

그는 원을 그려놓고 나를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단자, 반역자,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며,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상황을 이겨낼 사랑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리며 그를 감싸안았습니다!

- 에드윈 마컴, <배척당하더라도> 전문

“하느님은 모든 민족의 임금입니다.” (예레 10,7)

“하느님 앞에 모든 민족이 와 경배할 것이다.”

(시편 86,9-10; 말라 1,11)

“어떠한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 모셔라. 그분께서 네 앞길을 곧게 해 주시리라.” (잠언 3,6)

맨 끝 인용 구절은 공동 번역본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쭙어라.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지녀도 되지만, 희망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는 넘치도록 지니고 다니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을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라는 말씀처럼, 성체 앞에 머물며, 평범한 매일 중에서 하느님을 찾고, 작은 것에서도 거룩함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분을 임금 혹은 왕이라고 불러야 되는 날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날입니다. 인내와 사랑과 희생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마태 6,20 참조) 삶으로 초대된 날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의 고통과 불편과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법

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뻐하며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모든 것을 황금처럼 바꾸는 신비로운 순명의 정신을 배우는 날입니다. 인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날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뵈는 일이 없고 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1티모 6,13-16)

결국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승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뜻과 구원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잘 돌보라고 맡기신 이유도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한 시민이요,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나눠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삼위 사랑의 신비를 펼쳐 주셨습니다.

섬김과 기도와 자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겠지만, 작은 믿음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차호찬 시메온 신부
역곡 본당 주임

“저는 교리교사입니다. 이것이 제 소명이요, 의무입니다.”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새해인 대림시기를 준비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2025년 대림 성탄 캠페인을 통해 ‘박해받는 교회의 교리교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인천교구 주보를 통해 한 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교리교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평범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구세주의 탄생에 관해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루카 2,18)

세계 테러의 중심지가 된 아프리카 사헬(Sahel) 지대에 속하는 국가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의 사아도고 마티유(Sawadogo Mathiew)는 교회의 기둥인 교리교사입니다. 마티유와 그의 아내는 교리교사로 봉사하고자 4년을 준비하였고, 매우 외딴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의 신자들과 함께 지내며,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위한 준비와 함께 주일 공소예절을 담당했습니다. 이 교리교사 부부는 신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제와의 연결 고리였습니다.

2018년, 마티유는 임신 5개월인 아내와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되어, 4개월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조약돌로 세며, 700번의 성모송을 바쳤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납치범들은 이 부부에게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며, 개종을 강요하였습니다. 개종하지 않으면 목숨을 거두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견디어 낸 마티유와 아내는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뱃속 아기를 잃었습니다. 2주 만에 젖더미가 된 집에 도착한 그는 신분증과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교리교사로 임명되어 파견될 때 주교님께 받은 성경을 찾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결코 하느님께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충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따르는 분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그분 말씀을 전하며 그분께 충실해야 합니다.”

왜 부르키나파소의 교리교사들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목숨을 걸고 일할까요?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1코린 9,16)

천사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희망의 동반자로서 ‘교리교사’들을 영적, 물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모든 이웃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박기석 요한 사도 신부 | ACN 한국지부장 겸 지도신부
· 희망의 징표를 연재해 주신 박기석 요한 사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갈갈수녀님



· 3년 동안 갈갈수녀님을 연재해 주신 정민영 요한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코미(Eccomi), 다시 부르심 앞에 서다

김연주 마리아 | 학익동 본당 교리교사

교리교사의 희년을 맞이하여 떠난 로마, 아시시, 토리노 성지순례는 하느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특별한 초대였습니다. 사실 순례를 떠나기 전, 성당 안에서 교리교사로 봉사하다 보니 여러 관계 속에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순례의 길로 이끄시어, 다시금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로마에서의 여정은 희년의 문을 통과하며 시작되었습니다. 7대 성당을 순례하고, 매일 미사와 영성체의 은총을 받는 시간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사 후 파견 성가 ‘교사의 기도’를 부르던 것은 저에게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교사들과 하나 되어 부르던 그 노래를 통해 잠시 잊고 있던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금 허락해 주신 은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시시에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했던 삶을 떠올렸습니다. 또 MZ 세대의 성인인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복음적 삶을 묵상하며, 교리교사로서 제 삶을 어떻게 봉헌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례 10일째, 로마의 여정을 마치고 기차로 이탈리아 북쪽 토리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수의가 보존된 성 요한 세례자 대성당과 청소년들의 아버지 돈 보스코 성인이 세운 살레시오 수도회, 그리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평화의 무기고(SERMIC)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의를 눈앞에서 마주한 시간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돈 보스코 성인의 박물관과 SERMIC 공동체에서의 체험은 저에게 ‘사랑의 실천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랑을 거창하고 어려운 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게 주신 사랑을 학생들과 나누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번 순례를 준비하며 마음에 품은 두 가지 묵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15년 전 처음 교리교사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나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잘 쓰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이 제 순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례가 시작되기 전, 어쩌면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애써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며 지내온 제 자신을 마주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 중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는 주님을 말로만 사랑해 온 건 아닐까?’ 그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교리교사로 봉사하며 주님께 받은 수많은 은총을.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그분의 손안에서 쓰이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희년의 순례를 마치고 주일학교로 돌아와 학생들과 함께 미사드리며, 저는 이 순례를 주님께 다시 봉헌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와 함께하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동반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 삶이 다시 당신의 뜻 안에서 쓰이게 하소서. 아멘.”

그날, 바티칸 광장에서 교리교사 직수여식 때 들었던 응답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에코미(Eccomi!)”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위령의 날’ 선종 사제 및 모든 연령들을 위한 미사

교구 평협



3일(월) 백석 하늘의 문 묘원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와 교구 사제단의 집전으로 선종 사제 및 모든 연령들을 위한 위령 미사를 봉헌하였다. 강론에서 정 주교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에 대한 배려와 남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그마한 애덕의 실천으로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웃을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 그 선행의 열매를 쌓아갈 수가 있다”고 전하였다. 같은 날, 마전동 묘원과 포동 묘원, 김포 매곡의 모후 묘원에서 위령의 날 미사가 봉헌되었다.

청년교류 프로그램 “유익(YOUTH EXCHANGE with Fukuoka)”

교구 청소년사목국



1일(토)부터 3일(월)까지 교구 청소년사목국(국장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과 일본 후쿠오카교구가 청년교류 프로그램 “유익”을 진행하였다. 후쿠오카교구의 청년 17명과 사제 3명, 교구장 주교(Josep M. Abella) 총 21명이 인천교구를 방문했으며, 교구간의 청년교류는 작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두 번째 만남이다. 1일(토)에는 교구 역사관과 개항장 일대를 순례하며 인천교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인천가톨릭대학교 성 김대건 성당, 은계 성당, 해안 성당 세 개 본당으로 나누어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홈스테이를 지냈다. 홈스테이에서는 하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구역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 안에서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가정 기도에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전달된 강론을 통해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오늘의 만남이 그리고 오늘의 환대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부름에 응답한 것”이라고 전하며, 그 만남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2일(주일)에는 본격적으로 청년들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후쿠오카교구에서 선교 중인 신동휘 도로테오 신부의 강의를 통해 일본 교회의 현실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어진 프로그램들을 통해 인천과 후쿠오카의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며 친교를 나눌 수 있었다. 인천교구와 후쿠오카교구는 이 청년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며, 2026년에는 다시 인천교구의 청년들이 후쿠오카 교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사제전체회의

교구 홍보실, 교구 사무처



4일(화)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250여 명의 교구 사제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사제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성체조배 후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2026년 사목교서를 발표하였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환대, 순례와 만남, 선교라는 주제 안에서 3년 동안 이루어지며, 첫 번째 주제어인 환대가 우리 교구의 사목교서 주요 내용이 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세계청년대회를 기점으로 본당 전체가 더 활성화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교구청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 안내하였고, 특별히 내년에 진행될 교구 그룹홈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어린이들이 안정적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교구도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소년, 청년들을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 시설을 만들 예정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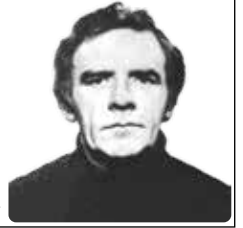
제24기 선교사학교 수료 미사

교구 홍보기자 장창규 루도비코



13일(목) 교구청 복자 이안나홀에서 제24기 선교사학교 수료 미사가 정병덕 라파엘 신부(복음화사목국 국장)의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정 신부는 “선교사학교에 응답한 여러분을 자랑스런 모습으로 파견한다”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담교우, 비신자 교우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교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곧 제자이며, 바로 참 선교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전하였다. 미사 후 수료자 59명에게 수료증과 선교사증을 수여하였고, 선교 및 교안 우수상 시상(8명)과 선교사학교에서 10년 동안 봉사한 박미혜 카타리나(부평4동) 봉사자에게 축복장을 수여하였다.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글) 목 브렌다노 1981.11.24 선종

교구청

563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26/1/11(주일) 13:30~18:30
장소: 복자 이안나 홀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노동사목부 무료 노동상담

산업재해, 해고, 임금체불, 고용차별 등
일시: (월~금) 9:00~18:00
문의: 032-502-3009

교육 | 미사

2025 본당사목회장단 및 교구 단체장, 공소회장 연수

일시: 12/6(토) 10:00~12:0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교구청)
신청마감: 11/30(토) 18:00까지

성령새신 봉사회와 함께하는 22일간 대림기도회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요한 1,9)
미사, 강의, 성시간, 치유, 부르짖는 기도, 떼제
일시: 12/1(월)~22(월) 19:30~22:30
20:30 미사
장소: 답동 성당 내 문화관 3층 성령홀
온라인 미사접수: [신희 131- 019 -112859]
문의: 032-761-6301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5(금)~13(토), 26/1/8(목)~16(금)
부부 힐링피정: 12/19(금)~21(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 2일 치유플

일시: 매월 마지막 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초정성령회관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 [1박 2일] (3식)
셔틀버스 운행: 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00~16:0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11/25 이상기 회장,
12/2 김효임 수녀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생태순례: 12/6~8, 12~14
2026년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9~11, 15~18,
1/23~25, 30~2/1, 6~8, 22~24, 27~3/1
추자도 성지순례: 26/3/5~8, 13~15, 19~22
올레 바닷길: 26/3/27~29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남이·해돋이):
12/31~26/1/3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낙태 후 화해피정-착한목자수녀회

일시: 12/5(금)~7(주일) [2박 3일]-회비 없음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가정선교회 12월 피정

일시: 12:30~16:50 가톨릭회관 3, 7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12/3(수)
김경진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12/6(토)
김현우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2/20(토)
김재덕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가정선교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6년 피정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모임
자연순례: 12/5~7, 13~15, 19~21, 26/1/10~12
연말연시피정: 12/31~26/1/3
(한라산, 해남이, 해돋이)
한라산 눈꽃산행 포함: 26/1/16~18,
26/1/22~24, 26-28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성경통독 & 길잡이 그림들

강의: 매주(월) 창세기, 매주(수) 여호수아기
10:00~17:00(파견 미사)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 샘(중동역 5분 거리)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故 현상욱 스테파노 신부 3주기 추모 미사

일시: 12/1(월) 14:00
장소: 백석 하늘의 문 성당

교구 체나콜로 미사

일시: 11/24(월) 작전동 성당
12:30 찬양
13:00 성체현시 안에 체나콜로 기도
14:00 미사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메세지 책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기도회 25주년 특별감사기도회

일시: 12/6(토) 13:00~18:00
장소: 꽃동네 연수원 대강당
대상: 누구나
문의: 010-5490-5345

모집 | 일반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분납 가능)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교구 성지위원회

부개2동 성당 추모관 "천상의 문" 신청

·성전 추모관에 지향자 성명 각인:
2인~2백만원부터
지향자: 매월 연도 및 추모 미사 봉헌
(설, 추석, 위령성월 제외), 기일 미사 봉헌
문의: 032-505-2048 사무실

강화 꽃동네 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어르신케어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010-7171-9503

교구 가톨릭스카우트 모집

신앙 안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스카우트 활동
모집: 유치부~성인까지 대장, 대원
문의: 010-2484-0072

산타크로체 합창단 단원 모집

교회음악(미사곡, 오라토리오)에 관심있는 교우
테너, 베이스 각 2명
연습: 매주(수) 19:30 [2시간]
장소: 동촌동 성당
문의: 010-9678-4201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상담자 노경덕 신부

시각선교회 예비자 및 봉사자 모집

문의: 032-881-8281, 010-8752-3533

솔샘나우리상담센터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놀이치료, 모래 놀이치료,
치료놀이,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대상: 아동 및 청소년
·국가바우처 사용 가능
문의: 032-872-2731, www.solsam.or.kr

인천교리신학원 2026년 신입생 모집

평신도 교리, 신학, 성경 교육과정
정원: 정규[2년] 30명, 심화[1년] 25명
문의: 032-830-7137, ds.iccu.ac.kr

2026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원서접수: 11/10(월)~26/2/20(금)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or.kr>

암환자, 가족 무료 쉼터 지원사업

이용기간: 최대 [4박 5일(월~금)]
장소: 강화도 마텔쉼터
참가자격: 암환자, 가족(보호자)
참가비: 전액 무료
문의: 032-937-7530 마텔암재단

예수그리스도 고난수도회**재속 3회(동반자회) 8기 모집**

모집기간: 9/28~12/7
자격: 세례받은지 3년 이상 된 남·여 신자
문의: 010-7553-4672 담당자
02-990-1004 우이동 명상의 집

가톨릭대 개교 170주년 기념음악회

170년의 빛나는 여정, 그 울림을 음악으로
일시: 12/5(금) 19:00 (전석 초대)
장소: 가톨릭대 성심교정 콘서트홀
주관: 가톨릭대 음악과
문의: 02-2164-4501

순례 | 기타**성심 해외 성지순례**

12/8 베트남 라방 성모 성지 [5일]
26/1/15 베트남, 마카오 성지 [6일]
지도 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2026년 가톨릭 해외 성지순례

1/20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2/2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2/3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3/17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7km [12일]
4/6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3일]
4/13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2026년 이오소피아 성지순례

1/22~25 동경 하비에르 성인 발자취
성지순례(6명 선착순)
2/23~26 마카오, 홍콩 성지순례(KE)
4/6~10 베트남 다낭, 짜끼우, 라방 성지순례(KE)
문의: 010-8705-0319

2026년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14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69만원-구정연휴
2/23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50만원
3/10 베트남 다낭 성모 성지 [5일] 160만원
3/24 터키, 그리스 [12일] 480만원
5/12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90만원(KE)
문의: 02-722-8366

2026년 미카엘 성지순례 (제주도 6명부터 출발)

2/20 동유럽 메주고리에 [12일]
3/09 베트남 다낭 [5일]
3/16 나가사키 [4일]
3/16 그리스, 튀르키예 [12일]
3/30 홍콩, 마카오 [4일]
4/20 그리스, 로마 [11일]
문의: 010-8650-9690

2026년 작은형제회 이탈리아 순례

로마, 아씨시 및 프란치스코 성지
[81차] 3/11(수)~22(주일) 545만원
[82차] 5/26(화)~6/6(토) 545만원
문의: 010-9704-9495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www.terrasanta.kr

2026년 「간 김에 순례」 프로그램

유럽 수도원 및 성지 순례(프랑스, 독일, 이태리)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분도출판사
문의: 010-5577-3605
분도출판사 홈페이지 참조

제주도 성지순례

가족,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사도회

대천해수욕장 요나 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https://yonaresort.com>

성소모임**한국외방선교수녀회**

일시: 수시로
장소: 보문동 수녀원, 가톨릭회관 209호(서울)
대상: 선교사 수녀로 살고 싶은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성가소비녀회

일시: 11/30(주일) 15:00
장소: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문의: 010-2841-0745

이주민들을 위한 쌀·김치 나눔

교구 이주사목부에서는 11~12월 이주민들을 위한 모금을 실시하여 12월 14일(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에 이주민 각 가정에 쌀 4kg와 김치 3kg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구 관할 지역의 이주민 공동체인 필리핀(답동, 오정동), 베트남, 방글라데시, 해양 어선원, 품놀이터, 중남미(역곡 콘솔라파) 공동체와 별사랑이주민센터, 글라렐이주민센터, 예수회 이웃살이(김포), 까리파스이주민문화센터, 국경없는 친구들 등 1,000 가정에 나눔 계획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인 이주민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사목부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_교구 이주사목부 부국장 김현우 바오로 신부

**후원계좌**

우리은행 [인천교구]
021-195818-13-501

1가정-4만원

쌀 4kg

김치 3kg

문의

032-764-1094

교구 이주사목부